

# 자제력의 원칙 억제



“자제력은 혀를 통제한다는 뜻이다! 성급한 응대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 (잠언 13:3 TLB)

저자: 존 슈록 (사업가)

이 원칙에서 발견된 핵심 개념에는 밑줄 그으세요.

혀는 비록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통제하기가 아주 힘들다. 우리는 혀를 사용해서 모욕하고 비난이나 비방을 하며 파괴할 수 있고 또 남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양육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다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떠도는 소문은 어딘가 떠돌아다니다 결국 그대로 되돌아 온다.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 파멸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해결책을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판단을 받는다. 성경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눅 6:45)고 말씀한다. 혀는 우리 몸의 다른 어떤 지체보다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해야 할 역할이 더 많다. 잠언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잠 21:23)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훌륭한 조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입을 지키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입이 문제를 키워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스스로 곤경에 처하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입이 가벼운 사람이거나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부인하려고 할 것이다. 일단 거짓말을 한 다음 빠져나가려고 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지독한 논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누구나 다정스럽고 사교적인 사람이 되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다. 하지

만 그것이 자랑이나 과장, 또는 남에 대한 이야기가 될 때는 혀를 통제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스스로 곤경에 빠진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남들에 관한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게 할 각종 싸움을 만들어 낸다. 거짓말은 그 사실이 밝혀진 다음엔 보통 자기 혀를 통제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 되돌아간다. 기업가로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혀의 충동적인 표현이 아닌 통제력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혀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1. 지혜로운 사람 -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
2. 성실한 사람 - 자신의 말과 기준을 절대 어긋나게 하지 않는 사람.
3. 똑똑한 사람 - ‘자신은 아는 게 없다’는 걸 알 정도로 겸손하고 입을 벌려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람. “입

을 벌려 모든 의혹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보로 여겨지는 것이 더 낫다”는 잠언의 말씀을 실증하는 사람.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멈추거나 통제해야 한다. 자제력은 혀를 통제하는 것이다. 혀는 좋은 말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긍정적인 운명을 만들어 줄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말의 능력을 알고 계신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선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혀를 조심하라.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1년 동안 실시되는 인성개발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

깊이 생각해보기:

아이디어는 당신이 작동시키지 않는 한 절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에서 10까지 자신을 평가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당신은 왜 이런 점수를 주었나요?										
당신이 점수를 올리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요?										
당신은 이 원칙의 유익한 점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나요?										
이 원칙에 대한 일일 독서 목록을 확인해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완료

미완료